

'우리'의 사용환경 분석

윤재학
(경희대학교)
jyoon@khu.ac.kr

1. 머리말

본 발표는 한국어의 '우리 마누라'와 같은 구문에 나타나는 '우리'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복수형으로 알고 있는 '우리'가 의미적으로는 단수로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일반인들도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 종종 다른 언어와 비교해서 농담의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무슨 이유로 이 연구를 시도하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본 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언어학적으로는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상당한 푸대접을 받아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누라', '우리 아버지', '우리 남편' 등에서 단수의 의미로 쓰인다는 고찰 이외에 이에 대한 더 구체적인 연구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알아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단수적으로 사용되는 환경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를 나열하고, 이에 대한 일반성을 포착하고, 이를 근거로 '우리'의 정확한 의미와 기능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유격 '우리'는 '내'에 대한 복수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보다는 '우리'는 같은 내집단(內集團, in-group)에 속한다는 것을 표시하는 어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논문 등의 문어체의 경우 이외에) 주어로서 등장하는 '우리'는 총칭문(generic sentence)에 국한되어 대조적으로 쓰일 때에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는 저의 직관을 기초로 시작하였으며, 제가 직접 응답자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상황을 설정한 후에 질문지법으로 23명을 대상으로부터 얻은 자료를 통해 대부분의 자료를 검증하였습니다.

사실, 변화과정에 있는 언어현상에 대한 설명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은 종종 체험하게 됩니다. 한 동안 저는 우리말 2인칭 '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결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부 방언의 경우를 제외한 표준 한국어에서 '니'는 (1)과 같은 경우에는 사용가능한데 반해, (2)의 경우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물론 '니'가 문자언어로서 문어체에 자주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이러한 사용이 역사적으로 오래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1) 가. 니가 멀리 떠난 후 사랑인 줄 나는 알았네.
나. 니 꼬라지를 알아라.
다. 내가 왜 니 맘 모르겠니?
라. 그래 니 맘대로 해.

- (2) 가. *니를 보면 내가 속이 터져.
나. *니 하나 믿고 내가 살아 왔는데 ...
다. *니의 가슴에 큰 멍에가 씌워져 있구나.
라. *니는 왜 나만 못살게 구니?
마. *니도 죽고 내(나)도 죽자.
바. *니 왜 여기 왔니?

(1)과 (2)의 자료를 정리하면, '니'는 소유격과 주격의 경우에만 국한되어 사용되는 것이며, (2바)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주격조사가 표면에 나타나야 하는 제약이 따릅니다. 가능한 사용환경을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네'의 사용환경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서는 한국어 모음체계에서 'ㄱ'과 'ㄱ'의 구분이 사라진 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구분이 사라지고 나니 '내'와 '네'의 구분이 사라져 결국 일종의 보정작용으로서 '니'의 등장이 요구받지 않았나 나름대로 추측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결론이 더 이상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표준어권의 어린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2)의 문장들이 사용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주제도 변화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특히 비교적 변화의 적용이 전반적인 음운적, 통사적 변화가 아닌 개별 어휘현상이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흥미롭고 의미있는 작업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2. 대상자료

오늘 다룰 자료는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의 경우는 일단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두 경우 공히 복수의 형태가 단수적 상황에 쓰인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2.1 주어로서의 '우리'

- (3) 우리는 설탕 없이는 커피 못 마시겠더라.

(4) 우리는 그런 때는 말로 안 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문장은 구사하지 않는데, 주로 중, 장년층에서 많이 사용하고 지방적 특성도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구문입니다. 기호나 성향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사적인 발언인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사용되고 있고, 항상 타인의 행동과 대비시켜 말할 때 쓰입니다. 예를 들어, 설탕을 전혀 넣지 않고 커피를 마신다거나, 투정을 부리는 아이에게 전혀 매질을 하지 않고 받아 주는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2.2 소유격 '우리'

주어로 사용되는 환경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경우가 '우리'가 소유격으로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아래의 예에서 가능한 한 상황을 항상 독점적 관계로 국한시켰습니다. 논리적으로 공동의 경우인 '우리 나라'와 같은 경우 이외에는 예외 없이 독점적 환경을 상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형님'의 경우, 형의 관계에 있을 수 있는 다른 동생이 없는 경우를 상정하여, 공동관계이기 때문에 화자가 본인과 다른 동생을 함께 지칭하여 '우리'를 사용하게 될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한 것입니다.

자료 유형 1: 인간관계

- (5) 가. 우리 아들이 전교에서 1등 했어요.
 나. ?? 내 아들이 전교에서 1등 했어요.
- (6) 가. 우리 남편은 집에 오면 소파에 누워서 TV만 봐요.
 나. ?내 남편은 집에 오면 소파에 누워서 TV만 봐요.
- (7) 가. 아이구 우리 손주 뽀뽀 한 번 하자.
 나. ??아이구 내 손주 뽀뽀 한 번 하자.
- (8) 가. 아이구, 우리 강아지 여기 왔어.
 나. ??아이구, 내 강아지 여기 왔어.
- (9) 가. 우리 형님이 어제 집에 오셨어요.
 나. #내 형님이 어제 집에 오셨어요.
- (10) 가. ??우리 동생 혹시 못 보셨어요?
 나. 내 동생 혹시 못 보셨어요?
- (11) 가. 어제는 우리 부하직원들이 찾아 왔어요.
 나. 어제는 내 부하직원들이 찾아 왔어요.
- (12) 가. 내가 좀 바쁘니까 우리 강아지 동물병원에 좀 데려다 줄래?
 나. 내가 좀 바쁘니까 내 강아지 동물병원에 좀 데려다 줄래?

- (13)가. 우리 지도교수님께서 특별히 부탁하신 사항이야.
나. ?내 지도교수님께서 특별히 부탁하신 사항이야.
(14)가. ??이번 스승의 날에 우리 지도학생이 선물한 거야.
나. 이번 스승의 날에 내 지도학생이 선물한 거야.
(15)가. #어제는 오랜만에 우리 약혼자를 만났어요.
나. 어제는 오랜만에 내 약혼자를 만났어요.

자료유형 2: 장소

- (16)가. 술집도 적당한 데 없는데 우리 집 같까?
나. ?? 술집도 적당한 데 없는데 내 집 같까?
(17)가. 우리 아파트로 오세요.
나. ??내 아파트로 오세요.
(18)가. #우리 연구실로 가서 얘기 합시다.
나. 내 연구실로 가서 얘기 합시다.
(19)가. 우리 사무실로 올래?
나. 내 사무실로 올래?
(20)가. #우리 고향은 정선이야.
나. 내 고향은 정선이야.

자료유형 3: '소유'관계

- (21)가. #내가 좀 바쁘니까 세탁소에서 우리 옷 좀 찾아다 줄래?
나. 내가 좀 바쁘니까 세탁소에서 내 옷 좀 찾아다 줄래?
(22)가. #우리 생일은 10월 3일입니다.
나. 내 생일은 10월 3일입니다.
(23)가. ??우리 차 어디 있는지 혹시 보셨어요?
나. 내 차 어디 있는지 혹시 보셨어요?

3. 선행연구

위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주제에 관한 선행연구는 찾기가 힘들었다. 예를 들어 표준 국어문법서인 남기심, 고영근(1985)에 다음과 같은 피상적 설명이 있다.

""우리'는 단수적인 상황에서도 나타나기도 한다.

(i) 지금까지 살펴 본 우리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간추릴 수 있다.

위의 예문의 '우리'는 필자(글을 쓴 사람)를 대신할 수 있는 데 사람에 따라서는 '나'를 쓰기도 한다. 의미상으로는 명백히 단수이나 이렇게 복수 형태가 쓰이고 있다. 이런 의미의 '우리'는 논문이나 논설문 등에서 서술을 객관화할 필요가 있을 때 채택될 수 있다.

단수적 용법의 '우리'는 '우리 아버지, 우리 오빠, 우리 집, 우리 학교, 우리 나라'에서도 나타난다. '우리 집'은 상황에 따라 '내 집'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나머지는 '*내 아버지, *내 오빠, *내 학교, *내 나라'가 불가능하거나 자연스럽지 못해 보인다. [중략] '우리'의 꾸밈을 받는 말이 가족이나 구성원들의 공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나' 아닌 '우리'의 선택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자료의 몇 가지 경우에서 관찰되듯이 독점적 관계의 경우에도 '나'보다 '우리'를 쓰는 경우가 있고, 다양한 변인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서술은 지나치게 단순한 서술이라고 평가된다.

이에 반해 신기현(2000)은 '내'와 '우리'의 차이가 단순한 수적인 차이 이상이며 '우리'의 경우 존경과 지위를 나타낸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두 어휘사용의 중요한 변인을 구분해 내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그의 논문에서 다음 (24), (25)와 같은 차이점에서, 서열 관계가 '우리/저희'와 '내/제'의 선택을 결정한다고 보았다.

(24) 가. 저희 형님 내외분이십니다.

나. ??제 형님 내외분이십니다.

(25) 가. 제 동생을 잘 돌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 우리 동생을 잘 돌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즉, 윗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 앞에는 (24)의 경우처럼 '우리'가 쓰이고, 아랫 사람을 지칭하는 경우에는 (25)처럼 '내'가 쓰인다는 것이다. 이 관찰은 (24), (25)의 경우 뿐만 아니라 위의 (5)-(23)에 나열된 자료의 상당부분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제공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서 윗 사람과 아랫 사람의 관계를 한국어 화자들이 일종의 피라미드의 은유로 파악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추측을 한다. 즉, 윗 사람과 아랫 사람의 관계는 일 대 일의 관계(one-to-one relation)가 아니라 일 대 다의 관계(one-to-many relation)로 파악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한 사람의 우두머리에 여러 명의 부하가 있는 것으로 설정하지 않나 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어진 상황과는 상관없이 윗 사람을 지칭하는 경우 공동의 '우리'를 쓰며, 아랫 사람의 경우에는 화자가 윗 사람이 되므로 이러한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아 단수의 '내'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Brown and Levinson(1987)을 인용하여 함축의 발생으로 인하여 의미적 사용(semantic-based usage)에서 화용적 사용(pragmatic-based usage)으로 변화하는 3단계의 한 예로서 '우리'를 제시한다. 그는 이 3단계 중에서 현재의 '우리'가 변화의 제 2단계에 있다

고 본다. 제 1단계에서는 '내'와 '우리'가 순수하게 단수와 복수의 구분만이 존재했었고, 앞으로 마지막 단계인 제 3단계에서는 '우리'가 복수의 기능은 없이 존경이나 사회적 위치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전혀 다른 기능으로만 사용되어 복수의 기능을 갖는 새로운 어휘가 출현할 수 있다고 추측하고 있다.

서열관계가 중요한 결정요인이라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서기현(2000)처럼 서열관계가 '내'와 '우리'의 선택에서 유일한 결정요인으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 설명이 요구되는 자료 중에는 '우리 남편', '우리 마누라'와 같은 예는 서열관계로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남편을 윗 사람으로 볼 경우, 아내가 아랫 사람이 되어 '우리 마누라'의 사용이 허용되지 않아야 하며, 동등한 관계로 보고 동등관계까지 '우리'를 쓰는 것이라고 간주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친구'보다 '내 친구'가 더 적절한 것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없게 된다. 또한 '내'와 '우리'가 순수하게 단수, 복수의 대조에서 출발하였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어원을 고려할 때 의문의 여지는 있다.

4. 자료분석

4.1 주어로서의 '우리'

논문과 같은 문어체에서 단수 대신 복수를 쓰는 경우는 최소한 두 가지 점에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단수적 '우리'와 구별된다. 우선, 이 경우의 '우리'는 장르에 따른 스타일의 일종으로서 상황에 따라 사용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한 한국어에만 국한되는 사용이 아니고 대부분의 언어에서 이와 같은 문체가 존재한다. 둘째, 논문에 나타나는 '우리'는 주어로서도 사용되며 소유격 형태로도 똑 같이 규칙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우리가 다룬 단수적 '우리'는 주어로 사용되는 경우와 소유격의 사용에서 표면적으로는 사용 가능한 상황에 관한 공통점이 발견되지 않는다.¹⁾ 따라서 두 가지 경우는 별개의 경우로 간주하고, 상황에 따라 허용성 여부가 결정되는 단수적 '우리'의 사용에 국한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위에서 (3), (4)와 같은 문장들은 항상 대조적인 환경에서 쓰인다는 점을 지적했다.²⁾

(3) 우리는 설탕 없이는 커피 못 마시겠더라.

(4) 우리는 그런 때는 말로 안 해.

1) 설문응답에서 주어로서 단수적 '우리'를 자주 사용하는 응답자들이 소유격 '우리'의 사용도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확인해 보았으나 둘 사이의 관계성은 확인할 수 없었다.

2) 엄밀하게 말하면, 대조와 상반되는 경우로서, 동조하는 의미로 특수조사 '도'를 쓰는 것이 허용되는 듯 하다.

(i) 가. 우리도 설탕 없이는 커피 못 마시겠더라.

나. 우리도 그런 때는 말로 안 해.

이는 (26)과 같이 특수조사 '는'을 주격조사 '가'로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 (26) 가. #우리가 설탕 없이는 커피 못 마시겠더라.
나. #우리가 그런 때는 말로 안 해.

또한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도 '우리'가 사용되지 않는다.

- (27) [저는 어제 아내 생일에 향수를 선물했어요.]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는 지난 번 마누라 생일에 장미를 선물했어요.

이는 다음의 문장과 대조가 된다.

- (28) [저는 아내 생일에 향수를 선물합니다.]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는 장미를 선물해요.

위 문장 (27)과 (28)의 차이는 다름 아닌 총칭성(genericity)으로 보인다. 오직 총칭문(generic sentence)에만 단수적 '우리'가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구문에서 화자는 자신의 기호, 성향, 의견을 표출하는데 '나' 대신 '우리'를 사용하여, 이러한 성향을 가진 집단이 있으며 자신이 그 집단에 속한다고 천명함으로써 자신의 성향을 정당화시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에게 대안으로서 강하게 제시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 주장은 아래 (29)와 같은 문장에서 (3), (4)를 사용하는 화자들 중 일부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용되지 못하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입증된다고 할 수 있다.

- (29) [저는 자주 북한산에 갑니다.]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는 토요일마다 도봉산에 가요.

비록 이 문장은 대조적인 환경에서 사용되는 총칭문이지만 (3), (4)와 경우와 달리 일부 화자에게는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총칭문이 '우리' 사용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이 아니며, 또 하나의 조건으로 어느 정도의 성향집단이 구성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 아닌가 파악된다. 문장 (29)가 위 (3), (4), (28)과 다른 점은 커피에 설탕을 타서 마시는 사람들과 아내 생일에 장미를 선물하는 사람에 비해 토요일마다 도봉산에 가는 사람집단의 존재가 일반적으로 쉽게 전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4.2 소유격 '우리'

소유격 '우리'의 사용을 결정하는 데에는 서열관계와 내집단의 개념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파악된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4.2.1 내집단(in-group)의 개념

'우리' 사용에 있어서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내집단'이라는 개념이다. '우리 X'가 표시하는 것은 X가 화자와 동일한 내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복수의 개념은 기본적인 것이 아니며, 상황에 따라 복수의 개념과 상충되지 않으면 외연적으로 '내'의 복수적 상황으로 인식될 가능성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을 뒷받침할 다섯 가지의 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가) '우리' + 고유명사

'우리'가 고유명사와 결합하는 경우, 이 구문은 고유명사가 지칭하는 개인이 화자와 같은 단체의 구성원이거나 (생물일 경우), 화자가 속하는 단체가 점유하는 지역, 또는 그 단체 자체라는 것을 표시한다. 이러한 경우의 예로서는 아래 (30)을 들 수 있다.

- (30) 가. 우리 연변에서는 ...
나. 우리 대한민국
다. 우리 카사블랑카를 잘 부탁드립니다.
라. 우리 네로를 잘 부탁해.
마. 우리 종필이를 잘 부탁해.
바. 우리 노사모에서는 ...

이런 예의 경우 '우리' 대신 '내'를 쓰면 비문이 됩니다.

- (31) 가. #내 연변에서는 ...
나. #내 대한민국
다. #내 카사블랑카를 잘 부탁드립니다.
라. #내 네로를 잘 부탁해.
마. #내 종필이를 잘 부탁해.
바. #내 노사모에서는 ...

고유명사를 보통명사로 교체하는 경우, 독점적 관계의 경우에는 적합성이 상당히 호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2) 가. ??내 지역에서는 ... [cf., 내 구역에서는 (신문, 우유배달 지역)]

나. #내 나라

다. 내 술집을 잘 부탁드립니다.

라. 내 고양이를 잘 부탁해.

마. ?내 아들을 잘 부탁해.

바. ??내 팬클럽에서는 [회원으로서 소속된 경우]

따라서, (30)과 (32)를 비교하여 볼 때, 이는 같은 집단의 소속임을 표시하여 애정을 더 담는 기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나) '우리' + 장소(보통명사)

이 경우에는 아래 (33), (34)와 같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33) 우리 나라, 우리 마을, 우리 동네, #우리 고향

(34) #내 나라, #내 마을, #내 동네, 내 고향

여기에서 차이를 발생시키는 고향이 나라, 마을, 동네와 구별되는 점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나라, 마을, 동네는 공동사회의 한 단위를 구성하는 반면, 고향은 그렇지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을과 동네 등은 사람들이 속하게 되는 단체인 반면, 고향은 반대로 특정인의 여러 특성(attributes) 중의 하나인 종속변수라는 것입니다. 고향은 함수적인 관계로서 누구의 고향으로서 의미가 있지 독립적인 '고향'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다음 문장 (35)에서 비교될 수 있습니다.

(35) 가. 여기는 참 좋은 나라/마을/동네야.

나. #여기는 참 좋은 고향이야.

'고향'과 같이 단체를 이루지 못하고 사람의 함수로 나타나게 되어 '우리'보다는 '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단어로는 '본적지', '주소'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36) 가. #우리 본적지/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 내 본적지/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향이 나라, 마을, 동네 등과 다른 점은 고향으로는 집단 구성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우리'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점이며, 이는 곧 '우리'가 내집단 표시 기능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 '우리' + 단체

다음의 문장들은 상황에 따라 적절성에 차이가 납니다.

(37) 가. 여기는 내 학교야.

나. 우리 학교가 최우수 평가를 받았어요.

(38) 가. 내 회사를 왜 내 맘대로 경영 못하나요?

나. 우리 회사는 노사의 인화단결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37가), (38가)는 재단 이사장과 오너 사장의 입장에서 소유권에 대해서 언급할 때만 적절하지만, (37나), (38나)는 소유지분과 상관없이 재단 이사장, 교직원, 학생 등 해당 기관에 소속된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물론 내집단 구성원 사이 뿐 아니라 청자가 외집단(外集團, out-group)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비슷한 결과가 다음의 문장에서도 나타납니다. 직장 동료와 함께 차를 타고 아파트 단지를 지나면서 특정 지점을 가리키면서 말을 하는 경우, (39가)는 소유권에 관한 것이고, (39나)는 소유권과는 무관하게 주거장소에 관한 언급일 수 있습니다.

(39) 가. 저거 내 아파트야.

나. 저거 우리 아파트야.

소유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권리이며, 주거는 공동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이 차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라) 단체의 구성 요건

다음 (40가)는 소유관계가 아닌 경우 '우리'가 사용되지 않는 구문들이다. 반면에 (40나)는 허용이 된다.

(40) 가. #우리 술집/식당/가게 [고객으로서 자주 가는 장소일 경우]

나. 우리 시장(market)/시청

시장과 가게의 차이는 무엇인가? 아마 시장은 지역주민이라는 공동체 전체가 이용하는 시설 (장소)로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격이 된다고 본다. 반면, 단골 술집이나 식당, 가게라고 할 지라도 그 곳의 단골 고객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지는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래 (15)의 문장들의 대조도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약혼자는 아직 가족의 일원으로서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용이 허가되지 않는다. 굳이 공동체를 이루려면 약혼한 두 사람만의 공동체로서 결혼 이전까지만 존재하는 임시적인 것이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사용될 정도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다.

(15) 가. #어제는 오랜만에 우리 약혼자를 만났어요.

나. 어제는 오랜만에 내 약혼자를 만났어요.

같은 맥락에서 (18)과 (19)의 차이도 설명이 가능하다. 교수 연구실은 (비록 조교 한 명이 상주하는 경우라도) 공간적으로 독점적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허용되지 않으며, 사무실은 책임자인 소장의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직원이 일반적으로 상주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직원들과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18) 가. #우리 연구실로 가서 얘기 합시다.

나. 내 연구실로 가서 얘기 합시다.

(19) 가. 우리 사무실로 올래?

나. 내 사무실로 올래?

어떤 개체가 위치 상으로 가정의 테두리 안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를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1)과 (23)을 고찰하자. '옷'과 '차'가 '남편', '아버지' 등과 대조가 되는 것은 생물과 미생물의 차이도 있지만 이 단어들이 지칭하는 대상의 존재 목적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 같다.

(21) 가. #내가 좀 바쁘니까 세탁소에서 우리 옷 좀 찾아다 줄래?

나. 내가 좀 바쁘니까 세탁소에서 내 옷 좀 찾아다 줄래?

(23) 가. ??우리 차 어디 있는지 혹시 보셨어요?

나. 내 차 어디 있는지 혹시 보셨어요?

'옷'과 '차'는 존재의 목적 자체가 화자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남편'과 '아버지'가 지칭하는 사람은 이 관계에 있는 사람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아

내와 자식들은 원하는 세계임은 분명하다).

혼자 사는 경우에 화자의 '집'과 '아파트'는 '옷'과 '차'와 유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 '우리 아파트'가 더 자연스럽다. 이는 혼자 사는 경우보다 가족생활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우리 집', '우리 아파트'가 습관적으로 쓰인 결과 독점적 상황에서도 소위 일종의 잔상효과 때문에 '우리'가 선호되는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그러나, '옷', '차'의 경우는 본래부터 독점적 소유의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잔상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차의 경우는 다소 공동소유의 경우가 더 흔하기 때문에 '우리 차'가 '우리 옷'에 비해 덜 어색하다.)

'우리'의 사용이 가능한 구성원의 자격으로 지리적 요건도 포함될 수도 있다.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유학시절에 한국에 있던 시절을 지칭할 때, '우리 나라에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색하다고 느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서울에 있을 때'로 대신했습니다. 영토를 벗어나 점유 상태가 아닌 경우에 '우리 나라'를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직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한국에 있을 때'로 쓰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으나, 우리 나라를 지나치게 객관화하는 것은 한국적 의식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마찬가지로 어색했으며, 전에 '한국'이라고 우리 나라를 지칭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난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 내집단 vs. 외집단

설문조사의 결과 독점적 소유의 경우 (12)의 문장에서 강아지가 3인칭으로 등장할 때는 '우리'와 '내'가 비슷하게 사용되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8)과 같이 강아지가 2인칭인 경우 '우리'의 사용이 두드러졌다. 이는 내집단 구성원 사이의 대화에서는 '우리'를 통해 집단의식이 고양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12) 가. 내가 좀 바쁘니까 우리 강아지 동물병원에 좀 데려다 줄래?

나. 내가 좀 바쁘니까 내 강아지 동물병원에 좀 데려다 줄래?

(8) 가. 아이구, 우리 강아지 여기 왔어.

나. ??아이구, 내 강아지 여기 왔어.

유사한 형태의 개인적 경험으로는, 제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 임용된 지 일 년 후에 어느 모임에서 선배 교수 한 분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을 때였습니다.

(41) 우리 학교 언제 오셨어요?

저는 이 질문이 상당히 무례하고 배타적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임용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외집단 사람으로서 내집단에 합류를 묻는 것인데, 이런 경우의 '우리 학교'를 사용하는 것은 저를 아직 내집단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을 보류하는 듯한 추론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래 (42)처럼 고유명사나 지시 형용사를 써서 객관화하는 것이 더 적절한 질문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42) xx 대학교/이 학교에 언제 오셨어요?

소유격 '우리'를 내집단 구성원 사이에 쓰는 것이 애정을 나타내는 것만큼 외집단 청자에게 쓰일 때는 배타성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자의 입장에서는 아래 (43)가 문장이 (43나)에 비해 거절의 강도가 높다.

(43) 가. 다시는 우리 집 오지마.
나. 다시는 여기 오지마.

이와 유사한 현상이 영어 문장에서도 관찰된다. 해당 국가의 영토 내에서 다음과 같은 발화가 이루어졌다면, (44가)의 문장은 매우 배타적 인상을 준다.

(44) 가. Spitting is considered a bad manner in our country.
나. Spitting is considered a bad manner in this country.

4.2.2 서열관계

내집단의 개념만으로는 아래의 대조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9) 가. 우리 형님이 어제 집에 오셨어요.

나. #내 형님이 어제 집에 오셨어요.

(10)가. ??우리 동생 혹시 못 보셨어요?

나. 내 동생 혹시 못 보셨어요?

(13)가. 우리 지도교수님께서 특별히 부탁하신 사항이야.

나. ?내 지도교수님께서 특별히 부탁하신 사항이야.

(14)가. ??이번 스승의 날에 우리 지도학생이 선물한 거야.

나. 이번 스승의 날에 내 지도학생이 선물한 거야.

따라서 내집단 개념과 별개의 요인으로 서열관계가 중요한 요인이라는 서기현(2000)의 주장은

타당성을 갖는다.

4.2.3 '우리'의 어원

한국학을 연구하는 최준식(1997)은 '우리'는 '돼지우리', '울타리', '울 밑에서 봉선화'에 나타나는 '울'과 '우리'에서 파생되었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같은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아버지', '우리 남편', '우리 마누라'라고 지칭하여 '우리'에는 소유의 의미보다는 내집단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본래적인 의미라는 것이 어느 정도 설명이 된다.

서두에서 언급했지만 이러한 의미의 '우리'가 '내'로 대체되는 변화가 현재 진행 중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광고 카피는 자연스럽게 들린다.

(45) 제 남편이에요. 능력도 있고 아내 사랑할 줄도 안답니다.

아래의 예에서 보면, 독자와 같이 독점적 관계인 경우에도 (46, 47가)는 자연스러운 반면, (46, 47나)는 허용되지 않는다.

(46) 가. 저 분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나. #저 분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47) 가. 저 사람이 우리 남편입니다.

나. #저 사람이 우리의 남편입니다.

같은 의미의 단형 '우리 아버지'가 존재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장형 '우리의 아버지'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다음은 두 형태가 다 받아들여진다.

(48) 가. 저 사람은 제 동생입니다.

나. 저 사람은 저의 동생입니다.

따라서, ['우리' + 명사] 구문은 굳어진 형태로서 주어로 나타나는 '우리'와 구별되는 것이 입증된다. 이는 서기현의 주장과는 반대로 원래 내집단을 표시하던 '우리'가 '나'의 복수 형태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5. 설문조사 결과

설문조사는 본 발표자가 재직하는 대학교의 동료교수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편이성 표본추출 방식을 사용하였으나, 연령이 하나의 변인일 것을 가정하여 이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질문

지를 작성하기 전에 본 발표자가 직접 내용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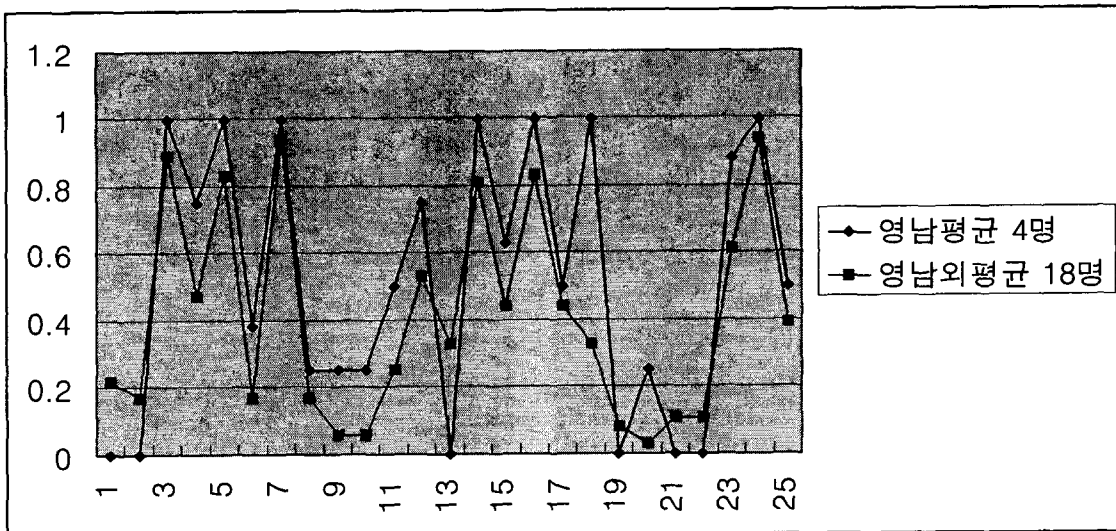
질문지는 아래 표 <3>과 같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를 선호하는 답에 0을 '우리'와 '내'를 똑 같이 선호하는 답에 0.5, '내'를 선호하는 답에 '1'을 할당하여 아래 표 <4>와 같이 나타내었다.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 서기현(2000)이 지적한 대로 인간관계에서 상하 위계가 중요한 변수라는 것이 밝혀졌다. 형 vs. 동생은 0.34 vs. 0.7의 차이를 보였고, 지도교수 vs. 지도학생의 경우는 0.32 vs. 0.89의 차이를 나타냈다. 그러나, 손주(0.14), 아들(0.16), 장남(0.11)의 경우는 이 척도로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ii) 청자가 내집단 소속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청자가 내집단 소속일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우리'의 사용률이 높았다. 2인칭 강아지 vs. 3인칭 강아지는 0.09 vs. 0.45의 차이를 나타냈고, 2인칭 조카 vs. 3인칭 조카는 0.11 vs. 0.52의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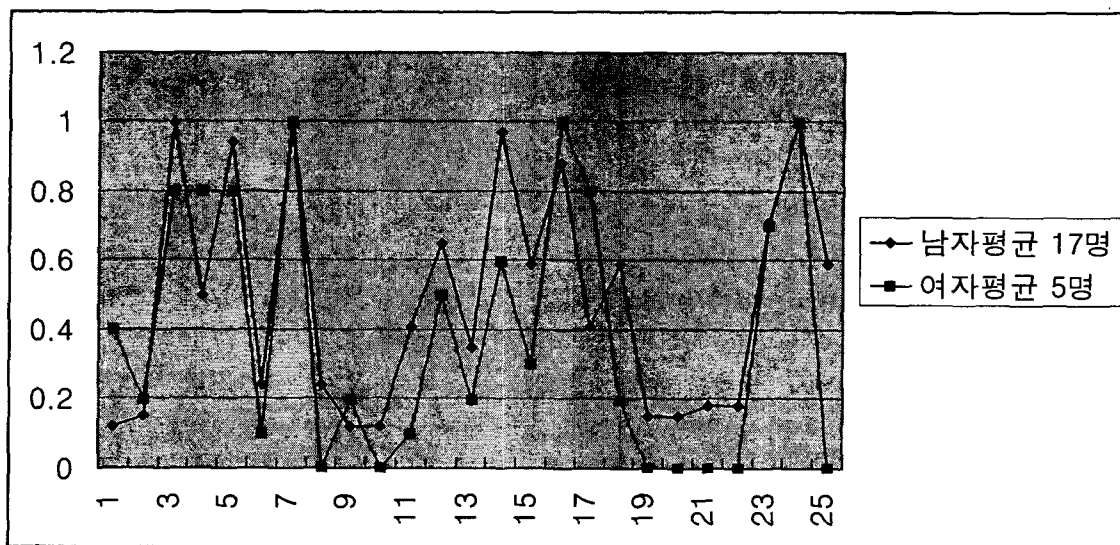
(iii) 연령은 의미있는 차이를 발생시키지는 못하였다. 이 결과는 주어로서 '우리'를 청년층에 비해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노년층의 응답에서 소유격 사용에 관해서는 이러한 경향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어의 경우와 소유격의 경우는 별개의 현상이라고 파악된다.

(iv) 영남출신자의 응답에서는 비영남 출신의 응답보다 '내'가 전반적으로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부하직원들'의 경우 1 vs. 0.33으로 차이가 뚜렷하였다.



<표 1>

(v) 또한 남성 응답자들이 여성 응답자들에 비해 '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도 발견되었다. 특히, 지도학생(0.97 vs. 0.6), 부하직원들(0.59 vs. 0.2), 3인칭 강아지(0.59 vs. 0.0) 관련 문항에서 두드러졌으며, 이는 하급자나 애완동물에 대한 것이어서 이 결과를 놓고 권위 대비 권위적이라는 다소 도발적인 해석도 가능할 듯 하다.



<표 2>

Singular '우리'

본 조사는 국어와 영어의 소유격의 사용의 차이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마누라'라고 하는데 이는 공동의 아내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따라서, 아래의 문항에 답을 하실 때, "공동의 의미가 아닌" 상황을 가정하여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경우가 더 선호되는지 가치판단에 관한 질문이 아니고, 언어습관에 관한 질문입니다.

1. ____ 아파트로 오세요. [혼자 사는 경우를 가정해서]
 가. 우리(저희) 나. 내(제) 다. 똑 같이 선호
2. ____ 아들이 전교에서 1등을 했어요. [편부, 편모의 경우]
3. ____ 연구실로 가서 얘기 합시다.
4. ____ 사무실로 올래? [단독 소유지만 부하직원이 몇 있는 경우]
5. ____ 차 어디 있는지 혹시 보셨어요? [가족이 혼자인 경우]
6. ____ 남편은 집에 오면 소파에 누워서 TV만 봐요.

7. _____ 생일은 10월 3일입니다.
8. 술집도 적당한 데 없는데 _____ 집 갈까? [혼자 사는 경우를 가정해서]
9. 아이구 _____ 손주 뽀뽀 한 번 하자. [할머니로서 손자에게]
10. 아이구, _____ 강아지 여기 왔어.
11. _____ 형님이 어제 집에 오셨어요. [막내동생의 경우]
12. 아이구, _____ 새끼 여기 왔어.
13. _____ 지도교수님께서 특별히 부탁하신 사항이야.
14. 이번 스승의 날에 _____ 지도학생이 선물한 거야.
15. 어제는 _____ 조카가 찾아 왔었어요. [본인이 유일한 삼촌인 경우]
16. 어제는 오랜만에 _____ 약혼자를 만났어요.
17. _____ 쫄병이 어제 사고를 쳤어요. [본인이 유일한 고참인 경우]
18. 어제는 _____ 부하직원들이 찾아 왔어요.
19. 아이고, _____ 조카 많이 컸구나. [본인이 유일한 삼촌인 경우]
20. 아이고, _____ 장남 많이 컸구나. [본인이 유일한 부모인 경우]
21. _____ 엄마 어디서 못 보셨어요? [외아들의 경우]
22. _____ 할아버지는요? [유일한 손주의 경우]
23. _____ 동생 혹시 못 보셨어요? [유일한 형/누나/언니의 경우]
24. 내가 좀 바쁘니까 세탁소에서 _____ 옷 좀 찾아다 줄래? [혼자 사는 경우]
25. 내가 좀 바쁘니까 _____ 강아지 동물병원에 좀 데려다 줄래? [혼자 사는 경우]

성명: 성별: 생년월일: 고향:

<표 3>

	평균	영남평균	영남외평균	노장평균	소장평균	청년평균	남자평균	여자평균
				54년 이전	55년-66년	67년이후		
문항	22명	4명	18명	6명	11명	5명	17명	5명
아파트1	0.18	0	0.22	0	0.18	0.4	0.12	0.4
아들(3) 2	0.16	0	0.17	0.08	0.27	0	0.15	0.2
연구실 3	0.95	1	0.89	1	1	0.8	1	0.8
사무실 4	0.57	0.75	0.47	0.83	0.41	0.6	0.5	0.8
차 5	0.91	1	0.83	0.67	1	1	0.94	0.8
남편 6	0.2	0.38	0.17	0.08	0.32	0.1	0.24	0.1
생일 7	1	1	0.94	1	1	1	1	1
집 8	0.18	0.25	0.17	0	0.36	0	0.24	0
손주 9	0.14	0.25	0.06	0.17	0.09	0.2	0.12	0.2
강아지(2) 10	0.09	0.25	0.06	0	0.09	0.2	0.12	0
형님 11	0.34	0.5	0.25	0.17	0.5	0.2	0.41	0.1
새끼 12	0.61	0.75	0.53	0.58	0.64	0.6	0.65	0.5
지도교수님13	0.32	0	0.33	0.33	0.45	0	0.35	0.2
지도학생 14	0.89	1	0.81	0.92	0.91	0.8	0.97	0.6
조카(3) 15	0.52	0.63	0.44	0.75	0.5	0.3	0.59	0.3
약혼자 16	0.91	1	0.83	0.83	0.91	1	0.88	1
플병 17	0.5	0.5	0.44	0.5	0.45	0.6	0.41	0.8
부하직원들18	0.5	1	0.33	0.33	0.55	0.6	0.59	0.2
조카(2) 19	0.11	0	0.08	0.25	0.09	0	0.15	0
장남(2) 20	0.11	0.25	0.03	0.25	0.09	0	0.15	0
엄마 21	0.14	0	0.11	0.33	0.09	0	0.18	0
할아버지 22	0.14	0	0.11	0.33	0.09	0	0.18	0
동생 23	0.7	0.88	0.61	1	0.55	0.7	0.71	0.7
옷 24	1	1	0.94	1	1	1	1	1
강아지(3) 25	0.45	0.5	0.39	0.5	0.45	0.4	0.59	0
평균	0.46	0.52	0.41	0.48	0.48	0.42	0.49	0.39

<표 4>

6. 결론

이상에서 우리는 소유격 '우리'는 '내'에 대한 복수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 명사]의 의미는 이 명사구가 지칭하는 대상이 화자와 같은 내집단(內集團, in-group)에 속한다는 것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주어로서 등장하는 '우리'는 총칭문(generic sentence)에 국한되어 대조적으로 쓰일 때에만 사용된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참고문헌

- 신기현. 2000. Grammaticalisation of Social Relationship: Deference and Number in Korean. 현대문법학회 2000년 하계학술발표회 발표논문, 계명대학교.
- 남기심, 고영근. 1985. 표준 국어문법론. 서울: 탑출판사.
- 최준식. 1997. 한국인에게 문화는 있는가. 서울: 사계절출판사.
- Brown, Pelelope and Stephen C. Levinson. 1987.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lsch, Derry L. 1987. The Grammaticalization of Social Relationship: the Origin of Number to Encode Deference. In Ramat, A. G., O. Carruba, and G. Bernini (eds.) *The 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istorical Linguistics*. Amsterdam: John Benjamins, pp. 407-418.